

## 보너스 레슨: 요한계시록 14-15 장

요한계시록 14 장 1-5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툼 라이트의 책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정예군’이라고 이름 붙여 준 이들은 누구인가? 이야기의 이 대목에서 이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 대답은 바로 요한이 다시 한 번 시편 2 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방이 격동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구상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자신의 왕, 자신의 아들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1 절에서 어린양이 시온 산에서 있다고 말한다. 앞서 우리는 용이 여자와 그 아들, 하늘로 옮겨진 그 자녀의 어린 형제들에게 격노한 것을 보았다(12:5). 앞서 우리는 두 괴물, 즉 바다에서 나오는 거대한 제국의 괴물과 지역 사회에서 직접 등장하는 지역의 이차적 괴물을 보았다. 그들은 시편 2 편에서 격노하고, 연기를 뿜고, 위협하고, 모독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왕을 보여 주시는데, 그분이 선택한 왕은 혼자가 아니다. 그분은 정예 부대, 정예군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의 승리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

그들이 정예군이기에 때문에, 요한은 그들을 (그가 사용하는 상징의 엄격한 울타리 속에서) ‘총각’ 혹은 ‘처녀’라고 부른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출전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정책이 있었다. 만일 전쟁이 정당성을 얻으면, 그것은 성전(聖戰)이 되었고,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성관계의 (일시적인) 자제를 포함해 특별한 순결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예컨대 신 23:9-10; 삼상 21:5). 여느 때처럼 우리는 상징과 그 상징이 지시하는 실재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징에 의하면, 이 부대는 14 만 4000 명으로 구성된다(우리는 물론 앞서 7 장에서 그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성관계를 자제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전투에 나설 영구적인 준비를 갖춘 하나님의 백성의 이상적 대표자들이다. 이 상징이 지시하는 실재에 의하면, 그들은 사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무리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을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또 그들 중 일부는 기혼이고 일부는 미혼이겠지만, 모두 실제 전투에 나설 영구적인 준비를 갖추었다. 이 전투는 괴물 및 그들의 요구와 맞붙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언제든 고난 혹은 심지어 죽음까지 그들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정예군은 로마와 그 지역 지지자들의 괴력에 직면해, 아마도 무기력과 절망을 느꼈을 작은 그리스도인 그룹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요한은 조금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어린양이 즉위하셨고, 그분의 정예군은 어린양을 따라 승리를 거둔 전투 준비를 갖추고 그분 주위에서 있다. 그들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들은 이마에 괴물의 소인 대신 하나님과 어린양의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일단 그들이 황제의 이름 대신 이 이름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물론 이것은 이교 사회에서 그들에게

낙인을 남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그들이 메시아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실 사람들이라는 표식을 남길 것이다(마 10:32).

어린양 주위의 이 거대한 군중은 모든 신자의 총합은 아니다. 이것은 시작, 더 큰 수확이 올 것을 알리는 중요한 예고 표지판이다. 이것이 4 절 “첫 열매” 이미지의 내용이다. 고대 유대인의 추수기에, 첫 곡식단(혹은 어떤 것이든 첫 낱알)은 추수까지 훨씬 더 많이 거둘 것이라는 기대와 기도를 상징하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렇더라도 이 14 만 4000 명은 교회에게 격려가 될 것이다. 이미 엄청난 군중이 존재한다! 어린양이 승리를 거두고 계신다! 우리는 인내하며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길은 특별히 거룩한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요한이 보기에, 용의 전체 체제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다. 용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진리의 세계, 가짜의 세계, 기만의 체제를 창조한다. 그러나 정예군에게서는 “그들의 입에서” 어떤 거짓말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어린양처럼(사 53:9) 이 면에서는 물론 다른 모든 면에서 흠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으로 남는다. 진리와 거짓말은 가끔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서 분수령에 선다. 하나님의 승리는 실제 세계, 온 창조 세계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 어린양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고 모든 것을 더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빼놓는 것이다. 이것이 실패할 때 사탄은 거짓말을 믿고 전달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사소한 일에 불과해. 정말로 하나님은 신경 쓰시지 않아. 그런 건 어리석고 편협한 규정일 뿐이야. 너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신다는 걸 모르니?” 등등. 어린양을 따르는 것은 거짓말을 거절한다는 뜻이다.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나 (124-126).

###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 같은 일터의 동료, 같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들의 인생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어리석고 편협한 규정”으로 여기도록 유혹 당하고 있다고 봅니까?
2.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들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3.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 장 1-8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툼 라이트의 책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심판의 시행’에 대해 얘기할 때, 그것은 염려할 이유일 뿐만 아니라 기뻐할 이유도 된다. 우리는 이미 시편 96 편과 98 편 마지막의 유명한 본문을 언급했다. 거기서 온 창조 세계,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과 채소도 야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한다. 왜 그런가? 왜 이것이 복음인가?

유대의 외딴 시골에 있는 한 마을을 상상해 보라. 그곳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정부 관료는 고사하고 장사치들조차 자주 오지 않는다. 운이 좋으면 순회 재판관이 몇 달에 한 번씩 작은 이웃 마을에 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한 건축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고객에서 속는다. 한 과부가 작은 지갑을 도난당했지만, 변호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집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땅 주인이 한 가족을 집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무슨 이득을 볼까 노리던 한 사기꾼이 동료 일꾼이 자기에게 사기를 쳤다고 고발했고, 그에 대해 다른 동료들이 사기꾼의 고발을 믿는 쪽으로 사태가 기우는 것 같다. 이런 식이다. 이런 일들에 대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재판관이 올 때까지.

재판관이 올 때 엄청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수개월간 억눌린 좌절감이 끊어오를 것이다. 재판관은 질서를 유지하고 고발과 변론을 똑같이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그는 각 사건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듣고, 특별히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피야 할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모든 뇌물을 거절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혼란이 진정되고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부정이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고, 도둑이 처벌받고 지갑은 주인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욕심쟁이 땅 주인은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거짓 고소인은 자신이 가하려고 했던 처벌을 그대로 자신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안도의 숨을 내쉴 것이다. 정의가 시행되었다. 세상이 균형을 회복했다. 고마워하는 지역 공동체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와 재판관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제 마을의 관심사를 글로벌적 차원으로 확대해 보자. 악한 제국과 지역 하수인이 점점 득세하며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돈과 생명, 쾌락을 가져간다. 당국자에게 호소해도 아무 소용없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당국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굽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더 가련하게 만들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올라갔듯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은 해방하고 치유하고 한시름 더는 위대한 심판의 행동이다. 마침내 만사가 바로잡힌다.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출 작전,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 행위에 감사하리라고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요한의 지평을 다시 한 번 지배하는 출애굽 이야기는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만이 아니다. 열방이 바라보며 스스로 말할 것이다. “과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과연 만사를 바로잡고,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시 58:11 을 보라). 또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것이다 (137-138).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오늘 국제사회의 어떤 부정부패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2.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어떤 부당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3. 여러분 자신이 어떤 억울한 일로 상처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4. 오늘 우리가 부당함과 억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균형을 회복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실습니까 (우리 자신이 종종 그 부당함과 억울함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